

나만의 작은 세상, 그림

나지선 KBS 시스템구축부 팀장

Painting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나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모든 고민을 잊고, 오로지 눈앞의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집중과 몰입은 나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화실에서 2시간 수업은 매번 너무 짧게 느껴졌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이 남아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도 도구를 갖추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내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은 온통 그림 그리기와 그림 작품으로 채워졌고, 그림은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시작한 수채화는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물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섬세한 색감과 경계를 허무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물감을 느끼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번진 색의 흐름을 어색하지 않고 어우러지게 만드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실험 같았다. 실수조차도 하나의 예술처럼 보였고, 수채화지는 점점 나의 성취감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수채화는 내게 인내와 유연함을 가르쳐 주었다. 한 번 칠해진 색은 쉽게 지울 수 없었기에 매 순간 신중해야 했고, 물의 양과 붓질의 강약이 작품의 분위기를 좌우했다. 물과 물감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결과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그 점이 수채화의 진정한 매력이었다.



집에 전시한 내 작품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다. 나만의 강렬함을 담고, 더 선명하게 내 의도를 표현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유화라는 또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유화를 시작하기 전, 나는 미술관 관람이라는 또 다른 취미를 통해 예술에 대한 시야를 넓혀갔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그들의 색감과 구도, 표현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술 전시회를 다니다 보니 수채화보다는 유화가 주를 이루었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대부분이 유화였기에 자연스럽게 유화에 대한 친숙함과 동경심이 커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파 작품들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는 빛과 색의 생동감, 순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클로드 모네의 연못 속 빛의 흔들림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강렬한 붓질과 색감은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그림을 보는 동안 나는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했다. 이들의 작품에서 받은 감동은 나를 유화라는 세계로 이끌었다. 수채화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와 질감, 그리고 강렬한 색감은 유화만이 가진 매력이었다.

모네와 고흐의 작품을 따라 해보며 나는 빛과 색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을 모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붓을 움직여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느낌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특히 모네의 그림 속 빛의 움직임과 고흐의 강렬한 에



첫 수채화 작품



첫 유화 작품

너지를 캔버스에 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들의 작품이 쉬워 보였던 이유는, 오히려 그 복잡함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있었다. 그 과정은 내게 유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유화 작품 진행 과정



완성된 유화



첫 유화의 디테일



대형 사이즈의 수채화 도전



두 번째 수채화

유화는 작업 공간이 더 필요하고, 재료 특성상 냄새가 심한 오일이나 미네랄 스피릿을 사용해야 해서 집안에서 자유롭게 작업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언젠가 집 안에 나만의 작업실을 만들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꿈꾸게 되었다. 넓은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마음껏 붓질을 하고,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나의 작은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3년 동안 나는 수채화와 유화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성장해왔다. 수채화는 내게 조화와 섬세함을, 유화는 과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색채와 기법으로 내 의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림에 담아내고, 그 그림을 본 사람이 내가 의도한 대로 감정을 느끼도록 표현하는 일은 여전히 나에게 큰 과제다.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모작하며 기본적인 기법을 익혔다. 또한 사진을 보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안의 느낌과 감정을 내 그림 속에 담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졌다. 그림은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으로 변해갔다.



수채화로 그린 인물화



여름의 시원함을 느끼기 위한 '바다 위 돛단배' 유화



마무리 사인 중



완성된 '바다 위 돛단배'



수채화로 그린 목련꽃

막막하기만 한 텅 빈 캔버스를 점점 채워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만족을 준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힐링이자 명상이 되었다. 붓을 들고 색을 엮는 순간은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수채화의 물맛을 느끼며 잔잔한 평화를 얻고, 유화의 거친 붓질 속에서 내 안의 열정을 해방하는 이 과정은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이 시간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온전히 그림으로 담아내고, 그 감정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매 순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붓을 들 때마다 느끼는 설렘은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킨다. 그림은 나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나를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이며, 내 삶의 여정을 담아내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언젠가 나만의 작업실에서 내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을 꿈꾼다. 📖



수채화로 그린 풍경화



유화로 그린 연못 풍경화



현재 작업 중인 작품



수채화로 그린 강아지